

「금강산 골프장」 설계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Mt. Kumikang Golf Course Design



글 / 徐 宇 鉉

(Suh, Woo Hyeon)

조경기술사,

現 장원골프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 대표,

前 임골프디자인사 대표이사,

前 서울시 노을공원(난지도 골프장) 기술자문위원,

前 환경부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자문위원.

E-mail: jwgolf@chol.com

1. 들어가는 글

1998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와 함께 휴전선을 넘으며 시작된 남북한의 구체적 경제협력은 분단 60여년을 바라보는 오늘날 자연천지의 최고 예술품이라 일컫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개성공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의 숙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가고 있다. 현대그룹과 북측이 체결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의정서의 취지에 따라 관광시설투자 및 경제협력에 관하여 양측이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원만한 진행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양측간의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경제 사회 문화교류 및 인도적 문제가 정치 군사적 문제와 연계되어 활성화되지 못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의 전술적 접근방식에 귀결한 결과였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측의 완고한 정치 경제 비분리 정책에도 그 원인이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갖고 논쟁하기 보다는, 각자의 경제실의 추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질서로 세계는 발 빠르게 개편되고 있는 실

정이다.

민족의 영산(靈山)인 금강산에서의 관광사업 실현은, 오늘날 지구상 유일하게 이념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땅에서 새로운 형태로 화해와 협력의 발전적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에 조성되어질 골프장의 건설은, 세계적인 명산의 하나로 실존하는 금강산을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형 관광단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신표탄이 될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사업에 본인이 미력한 힘으로나마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깊은 감회와 설렘을 느끼며, 나 자신의 각오를 숙연하게 한번 더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

2 금강산과 관광 프로그램

옛말에 이르길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천하의 산수를 논하지 말라”고 하였듯이,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봄에는 금강(金剛), 여름에는 봉래(蓬萊), 가을에는 풍악(風樂) 그리고 겨울에는 개골(皆骨)산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개성이 강하면서도 매우 아름다운 우리의 명산이다.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및 통천군 등 3개 군을 아울러 남북으로 60km, 동서로 40km에 걸쳐 자리한 금강산은, 530km²의 면적에 다양하면서 웅장하고 또한 수

려하면서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이미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아직 세상풍파에 노출되지 않은 이러한 천연색의 금강산에 내 자신이 골프 코스의 설계를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가슴 떨리게 설레긴 하지만, 금강산의 기상을 살리고 또한 그것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다짐해 본다.

기존의 금강산 관광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한 '볼 것(sight-seeing)' 위주의 유람(遊覽) 프로그램뿐이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 공간 속에서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 진행되는 작금의 관광 패턴은, 차후의 판촉 개선 및 그 신규수요 창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태생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라는 폐쇄적 사회의 특수성이 그 제약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주류는 '볼 것(sight-seeing)' 위주에서 '즐기는 것(relaxing resorts)'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금강산 인근에 환경친화적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업계의 변화 조류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연환경과 골프장 설계

골프장의 코스 설계는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골프장의 코스는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부지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작업이라 할 수도 있다. 즉, 코스 설계자는 현장에서 티 그라운드와 페어웨이 그리고 그린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흙에 묻혀 있던 그린을 꺼내고, 반쯤 잘린 페어웨이를 이어주며, 또한 그렇게 찾아낸 그린과 페어웨이를 향해 자신의 볼을 힘껏 날릴 수 있는 티 그라운드를 찾아 나서게 된다. 주어진 자연환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혹은 자기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코스를 찾아내 도면화

하는 작업이 곧 골프코스를 설계하는 일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는 이러한 이상향의 골프코스 설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 중에는 면적제한이란 조건이 있어, 9홀이든지 18홀, 또는 그 이상 홀의 설계에 있어서도 각각 법규상 수치적인 면적 제한이 있다. 이는 각종 연관법규들과 어울려 골프 코스의 방향과 파(Par)의 배열, 그리고 플레이어(player)의 동선(動線) 등을 이미 결정해 버린다. 즉, 자연지형에 합당한 코스를 기안함에 앞서 법규가 허락하는 기본 설계안(Layout)이 미리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설계가는 현장에서 코스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적인 규제조항의 태두리 안에 억지로 코스를 맞춰서 집어넣고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 골프장 건설을 위한 보존지역의 명시도, 결국엔 골프코스 부지 이 곳 저 곳에 산재되게 됨으로 인하여 보존지역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다.

코스의 조성은 원래의 자연 상태 보존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원 자연 상태로의 보존이 환경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이미 인위적으로



〈사진 1〉 금강산 풍경

훼손이 이루어져 지금 그대로 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부지 내에서 골프 코스를 찾아내어 배치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면, 주변 서식동물의 생태통로 보호와 자연 식생의 보전법칙을 최대한 배려하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의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골프 코스가 형상과 배치 면에 있어서 쌍둥이 같이 서로 대개 비슷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는 원인을 추론함에 있어서, '현행 법규가 규정하는 각종 제한과 조건 하에서는 허용 한도에 맞추기 위하여 코스의 지형과 수계를 인위적으로 변경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본인 혼자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4. 금강산과 골프장 설계

금강산 골프장 설계의 최우선 원칙은 환경과의 조화에 둔다. 이것은 외부의 권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북한이 그간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제한된 최소한의 경제활동만을 허용함으로써 금강산을 원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코스 설계에 심본 반영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다짐이다. 이러한 생각은 금강산 자락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자연스레 나의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

국내에서의 골프 코스 디자인은 한정된 공간과 아울러 각종 인·허가 사항의 규제로 인해 개발에 그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이번 금강산에서는 공간상 큰 제한 없이 숨겨진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찾아내어 마음껏 골프 코스로 배치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에서 작업의 매력을 느낀다. 북측의 낙후된 경제적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소화할 수 있다면, 면적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만큼 자연환경

을 최대한 보존하는 가운데 세계적 경관 속의 명문 골프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북한 곳곳에 생겨날 것으로 기대 한다. 이와 같이 금강산에서의 코스 설계 작업은 남한에서의 제약조건들이 배제된 하나의 실험적인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머릿속에 구상했던 코스와 루트(route)를 따라 현장 부지를 따라 걸으며 그린과 페어웨이, 그리고 벙커와 티 그라운드를 찾는다. 때론 사무실에서 완성된 코스 구상을 망각할 만한 새로운 코스의 흔적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될 경우, 그 동안의 노력이 허무하다기 보다 또 다른 형상으로 다가온 코스의 새로운 모습에 희열을 느끼게 된다. 코스 옆에 코스가 배치되는 정형화된 모습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코스와 코스의 사이에는 금강산 자락의 소나무 숲과 함께, 바람에 휩쓸리는 갈대와 연못이 자리할 것이고, 그 속에 그들과 어울리는 집을 설계할 것이다. 금강산 자락의 골프 코스는 그간 남측에서 경험한 바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에서 벗어나 환경친화를 목적으로 이상적 바탕에서 설계될 예정인 바, 우리 명산의 천혜적 자연조건 아래 골프 코스와 어울리기에 어울리는 숙박시설이 배치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리조트 단지로 건설될 것이다. 금강산 골프장이 완



〈사진 2〉 금강산에서의 필자

공되는 2006년 봄, 개막식에 즈음하여 세계적인 골프대회를 유치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곳에서 조우하여 시타(始打)를 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5. 금강산 골프장의 파급효과

금강산에 골프장이 조성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매년 증가하는 해외골프투어의 인구를 국내로 유입할 수 있다. 문광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골프 관광객이 20만명에 이르고, 현지에서의 여행경비 지출규모가 1인당 미화 1,000불 이상에 이르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한 해에 약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소비수요가 국내에서 구매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가 산업의 생산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현재와 같이 단순히 금강산을 경관 감상 위주로 고객을 모집하는 단기 유람형 관광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관광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으로 유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강산에서의 골프장 건설은 리조트 관광개발의 핵심 사업이자, 모든 계획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골프장 조성시 북한지역 주민들을 공사와 운영에 직접 투입하게 됨으로써 북측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양진영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금강산에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파생되는 혜택은 '금전'이라는 물질적 이익을 초월하여, 남북간의 화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의



〈사진 3〉 Diamond C.C Golf Resort 조감도

소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선정된 부지, 열악한 장비 및 전문 인력의 부족과 건실한 투자자의 부재, 그리고 불가피한 환경훼손의 발생 등, 앞으로 함께 이해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6. 마무리 글

북한에서는 골프용어도 매우 색다르다. 그린은 정착 지이며, 홀은 구멍으로 불린다. 해저드는 방해물이고 벙커는 모래 웅덩이, 그리고 아이언 클럽과 페어웨이 우드는 각각 쇠채와 나무채로 통한다. 티 그라운드에는 출발대(타격대)이며 페어웨이는 잔디구역, 파3홀은 짧은 거리, 파4홀은 중간 거리로 불린다. 이것은 외래어 유입 시 순화 재생산하여 사용하는 북측 특유의 언어 사용습관에 기인한 현상으로, 동일한 국어를 공유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해가 가능한 용어들이라 인정할 수 있다. 금강산 골프장의 활성화에 따라 이렇듯 북측 골프인들이 현장을 방문한 골퍼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남쪽에도 많이 전파되어, 남북 상호 이해와 화해분위기 조성에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금강산의 골프장 건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에서와 같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담아, 단일민족의 자랑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실무를 담당하는 설계가로서 금강산 골프장이 남북한 화해의 장에 시금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금강산 골프장 설계는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함께 민족통일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가 골프장 설계의 일반적인 하나의 실례(實例)에서 벗어나, 한민족의 화합과 통일, 그리고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한 평화 분위기 구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13일)